

워싱턴D.C. '사슴 전쟁' ... 저격수까지



▲ 워싱턴DC 주택가 잔디에서 사슴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 사진=cleveland.com

워싱턴D.C.에서 사슴 개체 수가 급증해 당국이 '사슴 전쟁'에 나섰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 D.C. 북부에 있는 록크리크 공원의 흰꼬리사슴 개체 수가 날로 늘고 있어 지역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2013년부터 사슴을 살처분하는 중이다. 당국은 공원에 경찰 특수기동대 소속 저격수 팀을 배치했다. 사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숲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1890년에 설립된 약 71만㎡ 규모의 록크리크 공원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도 즐겨 찾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사슴은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됐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개체가 급증해 당국은 집계를 포기했다. 현재 미 전역에서 3,0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동부 지역에 서식 중이다. 얼 허드넷 전 미국 농무부(USDA) 야생 생물 학자는 "포식자도 없고, 사냥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먹이도 풍부한 환경이 이 사슴을 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Human-eSociety)의 전 동물 보호 운동가 그루니왈드는 2012년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사슴 살처분을 막기 위한 소송을 걸었다.

그는 "사슴을 매주 깎는 잡초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슴도 지구의 소중한 구성원이다"고 말했다. 그는 피임과 같은 비살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실현 불가능'이란 답변을 내놨다.

구입 막힐라 ... 낙태약 미리 사는 여성들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을 구매해두는 미국 여성이 늘고 있다.

3일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13주 이내 및 임신 전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제공해 온 원격의료기관 '에이드엑세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문이 사전 유출된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비임신 여성의 낙태약 구매는 하루 평균 25건에서 118건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이날 발간된 '미국의학협회저널-내과학' (JAMA-Internal 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낙태약 구매 이유를 묻는 말에 대부분 여성들은 "개인적인 건강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또는 "가능한 낙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연구진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분명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낙태권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위협을 지켜보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지난 2022년 시민들이 새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주 국회의사당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AP/연합뉴스

고 설명했다.

낙태약을 구매해 간 비임신 여성 중 설문에 응답한 937명 중 대부분은 아직 약을 먹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58명이 약을 먹었고 55명은 다른이에게 약을 줬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부채 무려 34조 달러 ... "우울한 '성과'"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인 34조 달러를 기록했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CN N은 전날 미국 정부의 부채가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의회가 새로운 연방 자금 계획에 동의하기 시작한 시한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공 부채 총액은 34조1억 달러까지 올랐다.

국가 부채는 정부의 지출과 세수의 차이로 발생하는 적자다. 재정 감시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의 마야 맥기네스 회장은 이 기록적인 수치를 두고 "정말 우울한 '성과'다"고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전날



▲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성명에서 "비록 우리의 부채 수준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 모두에 위협하지만 국가는 대출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 부채를 두고 양당은 서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지원하는 2017년 감세가 세입을 잠식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타도 컷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구제 패키지가 부채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마이클 키쿠카와 백악관 대변인은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평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고, 대형 제약·석유회사를 포함한 특수이익에 대한 낭비적인 지출을 줄여 적자 폭을 2조5,000억 달러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